



현재 정부는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적기 집행에 집중하고 있으며, 국채 상환을 통해 외환·국채시장 안정화 등에 노력하였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4.7.(화) 문화일보는 「삼전 올 영업이익, 정부 예산의 40%... 법인세 특수에 ‘2차 추경’ 솔솔」 제하의 기사에서 “정부가 추경안 국회 제출 6일 만에 2차 추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”면서,
 - “금번 추경에 대해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직접적인 국채 추가 발행과 유사한 효과라는 평가를 내놓았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금번 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, 중동전쟁으로 직접 타격을 받은 기업·산업 지원 등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재정 투입을 할 예정이며,
 - 국회에서 금번 추경이 조속히 확정되면 정부는 추경 사업을 적기에 집행 하는데 최대한 집중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추가 국채발행 없이 연도 중 초과세수를 활용하면서 국채 상환 1조원을 할 경우 국채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대외 신인도 평가, 외환·국채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합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애 (044-214-23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유현 (janes0425@korea.kr)